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20. 12

동향분석실

머 리 말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경기침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저금리 심화, 유동성 급증 등 다양한 경제환경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앞으로의 경제성장 경로를 예측하는데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은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난 듯 보이지만, 초저금리 환경 속에서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 우려는 여전하며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여건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즉각적인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하였다.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단기적 변동성 확대 후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았으며, 이 과정에서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유동성이 급증하였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4차 산업의 부상이 앞당겨지고 있다.

보험산업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동안 성장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저금리 심화, 인구 고령화,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판매채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건강관리서비스, 디지털보험, 온라인 채널 혁신 등 신규 사업모형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0년 보험산업을 조망하고 2021년을 전망함으로써 보험산업이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팬데믹 이후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가 보험산업의 경영과 당국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20년 12월

보 험 연 구 원
원 장 안 철 경

■ 목차

요약 / 1

I. 경제·금융 환경 / 3

1. 세계경제 / 3
2. 국내경제 / 4
3. 금융시장 / 6
4. 2021년 국내경제 전망 / 8

II. 보험산업 주요 동향 / 10

1. 코로나19 확산과 보험산업 / 10
2.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 주요 동향 / 12
3. 성장성 및 수익성 평가 / 22

III. 2021년 보험산업 전망 / 23

1.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개요 / 23
2.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 24
3. 생명보험 / 28
4. 손해보험 / 32
5. 보험권 퇴직연금 / 38

IV. 경영 및 정책과제 / 39

1. 진단 및 과제 도출 / 39
2. 세부 과제 / 42

■ 표 차례

- 〈표 I-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 9
- 〈표 II-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 12
- 〈표 II-2〉 연금보험 부진의 원인 / 14
- 〈표 II-3〉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 17
- 〈표 III-1〉 보험산업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 / 27
- 〈표 III-2〉 보험산업 종목별 일시납 초회보험료 비중 / 28
- 〈표 III-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29
- 〈표 III-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33
- 〈표 III-5〉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34
- 〈표 III-6〉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37
- 〈표 IV-1〉 정책 및 경영과제 / 41

■ 그림 차례

- 〈그림 I-1〉 OECD 주요국 경제성장률 / 3
- 〈그림 I-2〉 OECD 경기선행지수 / 3
- 〈그림 I-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 4
- 〈그림 I-4〉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 4
- 〈그림 I-5〉 분기별 GDP 성장률 / 5
- 〈그림 I-6〉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5
- 〈그림 I-7〉 국내 민간소비 성장률 / 6
- 〈그림 I-8〉 소비자 심리지수 및 물가상승률 / 6
- 〈그림 I-9〉 국내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성장률 / 6
- 〈그림 I-10〉 국내 재화 수출입 성장률 / 6
- 〈그림 I-11〉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추이 / 7
- 〈그림 I-12〉 통화량 증가율 추이 / 7
- 〈그림 I-13〉 주가지수 추이 / 7
- 〈그림 I-14〉 주식시장 고객예탁금 및 신용잔고 추이 / 7
- 〈그림 I-15〉 원/달러 환율 추이 / 8
- 〈그림 I-16〉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 8
- 〈그림 II-1〉 보험산업 장기 성장성 추이(2010~2019년) / 10
- 〈그림 II-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 11
- 〈그림 II-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11
- 〈그림 II-4〉 가계 금융상품 거래 증감 / 12
- 〈그림 II-5〉 저축보험 월별 초회보험료 / 13
- 〈그림 II-6〉 예적금이율 및 공시기준이율 추이 / 13
- 〈그림 II-7〉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 14
- 〈그림 II-8〉 변액보험 월별 초회보험료 / 14
- 〈그림 II-9〉 주가지수와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 14
- 〈그림 II-10〉 초회보험료 / 15
- 〈그림 II-11〉 수입보험료 / 15
- 〈그림 II-12〉 보장성보험 / 16

■ 그림 차례

- 〈그림 II-13〉 연금 및 저축보험 / 16
- 〈그림 II-1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 변화 / 16
- 〈그림 II-15〉 자동차 등록 대수 추이 / 17
- 〈그림 II-16〉 자동차보험 월별 원수보험료 / 18
- 〈그림 II-17〉 자동차 책임보험 신계약 건수 추이 / 18
- 〈그림 II-18〉 자동차보험 손해율 / 18
- 〈그림 II-19〉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 18
- 〈그림 II-20〉 일반손해보험과 명목GDP 성장률 / 19
- 〈그림 II-21〉 책임보험 및 기타특종보험 원수보험료 / 19
- 〈그림 II-22〉 장기 질병·상해보험 월별 원수보험료 / 20
- 〈그림 II-23〉 장기 저축성보험 월별 원수보험료 / 20
- 〈그림 II-24〉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 변화 / 20
- 〈그림 II-25〉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 21
- 〈그림 II-26〉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 21
- 〈그림 II-27〉 보험산업 ROA / 21
- 〈그림 II-28〉 상장 보험회사 주가추이 / 21
- 〈그림 II-29〉 보험산업 성장성 및 수익성 평가 / 22
- 〈그림 III-1〉 2021년 수입보험료 전망 / 23
- 〈그림 III-2〉 보험료 전망 개요 / 24
- 〈그림 III-3〉 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 / 26
- 〈그림 III-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 29
- 〈그림 III-5〉 생명보험 종목별 규모 / 29
- 〈그림 III-6〉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30
- 〈그림 III-7〉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31
- 〈그림 III-8〉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 32
- 〈그림 III-9〉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 33
- 〈그림 III-10〉 손해보험 종목별 규모 / 33
- 〈그림 III-11〉 장기 상해·질병 원수보험료 전망 / 34

■ 그림 차례

- 〈그림 Ⅲ-12〉 장기 운전자·재물·통합 원수보험료 전망 / 35
- 〈그림 Ⅲ-13〉 장기 저축성 원수보험료 전망 / 35
- 〈그림 Ⅲ-14〉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36
- 〈그림 Ⅲ-15〉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 37
- 〈그림 Ⅲ-16〉 퇴직연금 수입(원수)보험료 전망 / 38
- 〈그림 Ⅲ-17〉 사외적립비율 확대 및 퇴직연금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 38
- 〈그림 IV-1〉 헬스케어와 안전산업의 부상(좌) 및 온라인 거래 증가(우) / 39
- 〈그림 IV-2〉 경제성장률(좌) 및 국채수익률 기간구조(우) 추이 / 40
- 〈그림 IV-3〉 한국판 뉴딜 / 41
- 〈그림 IV-4〉 신규판매·갱신 중단된 잔존계약(Run-off)의 이전 거래 / 42
- 〈그림 IV-5〉 K-ICS 로드맵(좌)과 예금보험·정리제도 평가(우) / 43
- 〈그림 IV-6〉 전 세계 가용데이터(좌)와 보험회사 데이터 원천(우) / 44
- 〈그림 IV-7〉 소비자의 AI 친숙도와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도 / 44
- 〈그림 IV-8〉 스마트 헬스케어의 민·관 협력모델과 보험산업의 장기대체투자 추이 / 45
- 〈그림 IV-9〉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공급과 사전예방 영업위험 감독 / 46

Insurance Industry Outlook and Agenda in 2021

In the first half of 2020, the insurance industry grew rapidly thanks to policy effects after the spread of COVID-19,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s growth potential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nd concerns about deteriorating profitability remain. In 2021, the insurance industry (excluding retirement pensions) is expected to return to a low growth trend due to the disappearance of COVID-19 related policy effects and a limited economic recovery.

In 2021, life insurance premiums excluding retirement pensions are expected to decrease by 0.4%. Protection-type insurance is projected to grow only 2.9% due to continued deterioration in the face-to-face channel business environment and strengthened sales regulations. General savings-type insurance is expected to decline 2.6% on the continuing decline in annuities and the base effect of savings insurance. Annuities are expected to continue declining premiums in 2021. Savings insurance is expected to continue to inflow of short-term liquidity, but it is unlikely to expand further due to concerns over the expansion of negative interest rate margins. In the case of variable savings-type insurance, initial premiums are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stabiliz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following the economic recovery in 2021, but premiums are expected to decrease by 6.0% due to the continued decline in subsequent premiums. Meanwhile, life insurance retirement pension premiums are forecast to increase 17.6% YoY.

In 2021, premiums for non-life insurance, excluding retirement pensions, are expected to increase by 4.0%. Among long-term insurance, the growth of disease and accident insurance is expected to slow slightly to 8.0%. Long-term savings-type insurance premiums are expected to decline 21.3%, depending on non-life insurance companies' portfolio strategy focused on protection-type

insurance. Auto insurance is projected to grow only 2.9% due to the disappearance of premium adjustment effects and a slower growth in the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General insurance is projected to grow 5.1%, despite the sluggish maritime and guarantee insurance, thanks to the high growth of special insurance. Meanwhile, premiums from non-life insurance retirement pensions are expected to increase 8.4% YoY.

The insurance industry is facing a corona economy and an aging society. The insurance industry needs to strengthen the coverage of various disaster risks such as corona infectious diseases and climate change in a non face-to-face and digital environment. In addition, the insurance industry should reinforce the role of the social safety net as a health and income security provider for the aged society. Meanwhile, the insurance industry needs to establish a market infrastructure to promote innovation for the use of big data and fair competition, induce preemptive risk management, and promote stakeholder management.

요약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은 코로나19 확산 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고성장이었으나 향후 성장성이 지속될지 의문이며, 수익성 악화 우려도 여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동성 확대가 단기 저축 수요 이상의 구조적 보험수요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한시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한 자동차보험 고성장은 지속성이 낮아 보인다. 대면 채널 영업환경 악화, 소비여력 감소에 따른 보험수요 위축 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보험산업(퇴직연금 제외)은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소멸, 제한적 경기회복 등으로 저성장 추세 회귀가 전망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보험산업의 고성장엔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은 2020년 2.5%에서 2021년 -0.4%로 역성장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며, 손해보험은 2020년 6.1%에서 2021년 4.0%로 성장성 둔화가 전망된다.

2021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0.4% 감소할 전망이다. 보장성 보험은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지속, 판매규제 강화 등으로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민간소비의 제한적 회복으로 보험료가 고가인 종신보험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설계사 및 대리점 영업환경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연금보험의 감소세 지속과 저축보험의 기저효과로 2.6% 감소할 전망이다. 연금보험은 2021년에도 연금보험 시장 수요·공급측면의 부정적 요인들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수입보험료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보험은 단기 유동성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차역마진 확대 우려로 추가적인 규모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입보험료의 소폭 감소가 전망된다. 변액저축성보험은 2021년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으로 초회보험료 증가가 기대되나, 계속보험료의 지속적 감소로 수입보험료는 6.0%의 감소가 전망된다. 금융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직접 투자 선호에 따라 변액보험 초회보험료의 대폭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생명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7.6% 증가가 전망된다.

2021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 보장성보험 중 질병·상해보험 성장세는 8.0%로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질병·상해보험은 보장확대 경쟁이 완화되면서 초회보험료 유입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갱신보험료 증가에 의한 계속보험료 중심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21.3% 감소가 전망된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효과 소멸,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둔화로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2020년 2월 보험료 인상 효과는 2021년부터 소멸될 것으로 보이며, 한시적으로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도 둔화될 전망이다. 일반보험은 해상, 보증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특종보험의 고성장으로 5.1%의 양호한 성장이 전망된다. 보증보험은 건설투자의 회복 지연으로 1.2% 성장이 전망된다. 해상보험은 위성보험의 기저효과, 수출입 물동량 감소, 조선수주 감소 등으로 2.3% 감소가 전망된다. 특종보험은 책임보험 확대, 농산물재해보험, 휴대폰보험 등 신규 담보 확대로 6.9% 성장이 전망된다. 한편 손해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8.4% 증가가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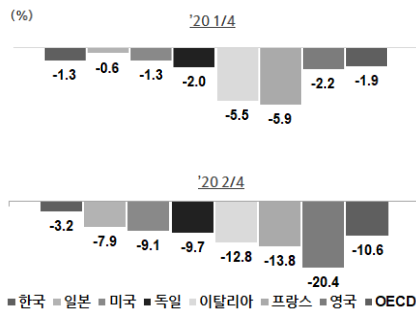
보험산업은 코로나 경제와 고령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환경에서 코로나 감염병이나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각종 재난위험 보장과 고령사회의 건강과 소득 보장 공급자로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활용과 공정경쟁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고 선제적 위험관리를 유도하고 이해관계자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I. 경제·금융 환경

1.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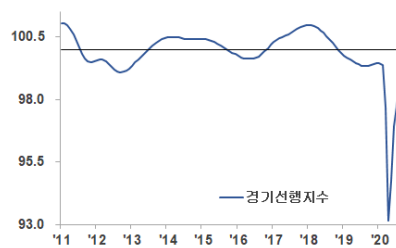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와 2/4분기 OECD 경제규모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각 1.9%, 10.6% 감소함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 중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의 GDP 감소가 두드러짐
 - 반면 코로나19의 확산을 조기 진화한 우리나라 GDP 감소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임
 - OECD 경기선행지수는 4월 이후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점인 100을 하회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은 상황임

〈그림 I-1〉 OECD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전기 대비 성장률임
자료: OECD

〈그림 I-2〉 OECD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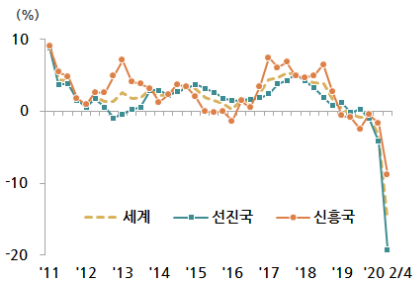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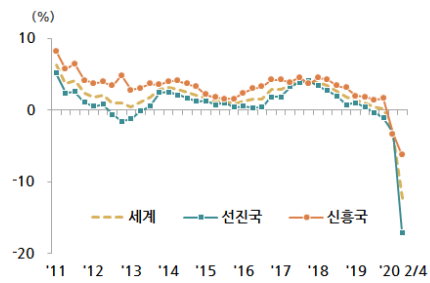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로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은 모두 큰 폭 감소함

- 코로나19 피해가 큰 선진국의 무역규모 및 산업생산 감소가 두드러지는 모습임
- 세계 무역규모 감소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림 I-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그림 I-4〉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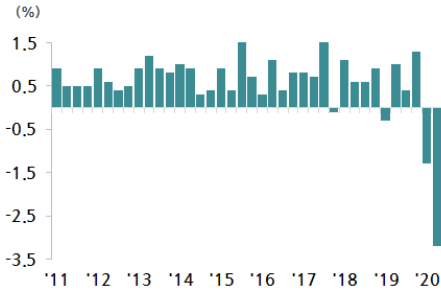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2. 국내경제

■ 우리나라 GDP는 2020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1.3%, 3.2% 감소하였고, 이는 2/4분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면서 수출입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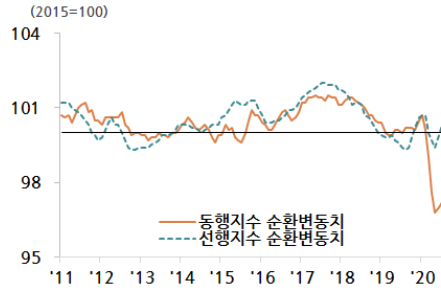
- 현재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경기동행지수는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향후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선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소폭 상회하고 있음

〈그림 I-5〉 분기별 GDP 성장률



주: 전기 대비 성장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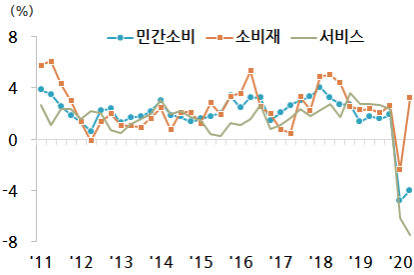
〈그림 I-6〉 동행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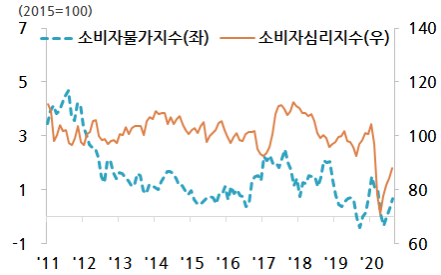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GDP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이 최고조에 달했던 1/4분기 큰 폭 감소 후 2/4분기에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2/4분기 재화소비는 증가세로 전환한 반면, 대면영업이 필요한 서비스업은 1/4분기보다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폭 개선에 그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지수는 0% 대에 머물고 있음
 - 설비투자는 2019년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반도체수요 회복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20년 상반기 수출입 물동량은 세계 교역량 감소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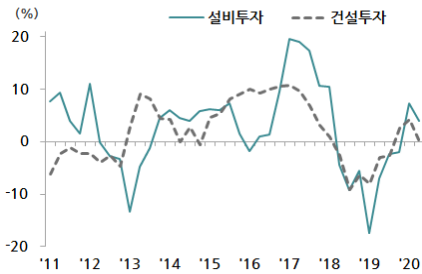
〈그림 I-7〉 국내 민간소비 성장률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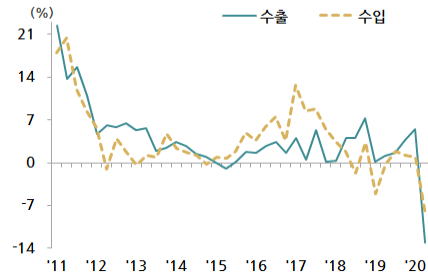
〈그림 I-8〉 소비자 심리지수 및
물가상승률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9〉 국내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성장률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0〉 국내 재화 수출입 성장률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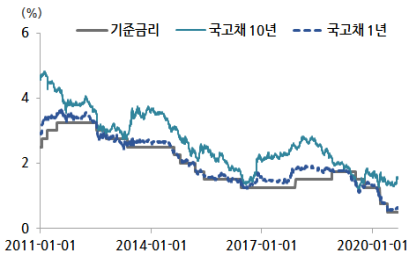
3. 금융시장

가. 금리

-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 수준으로 인하함
 - 기준금리 인하로 단기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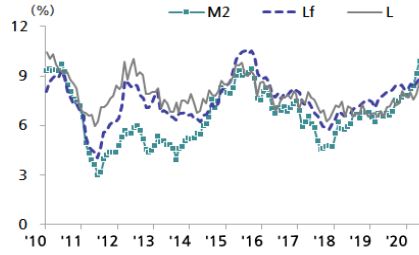
- 통화량은 2018년 이후 소폭 증가해 왔으나, 2020년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저금리 환경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한 영향임

〈그림 I-11〉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추이



주: 국채(10년) 금리, 2020년 9월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I-12〉 통화량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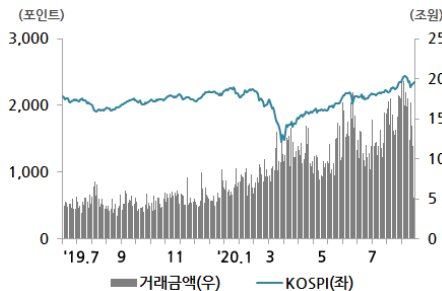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나. 주가 및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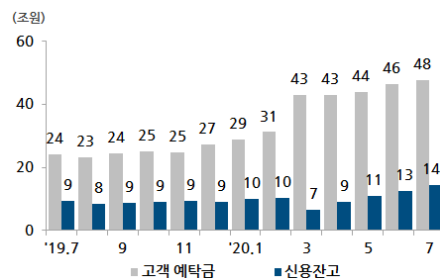
- 2020년 상반기 코스피지수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최고조에 달했던 3월, 1,400선 근처까지 급락하였으나,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급반등함
-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주식시장 고객예탁금은 2019년의 두 배 가량 급증하였으며, 신용잔고 또한 증가함

〈그림 I-13〉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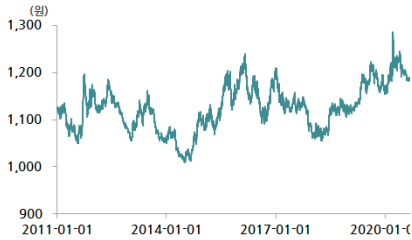
〈그림 I-14〉 주식시장 고객예탁금 및 신용잔고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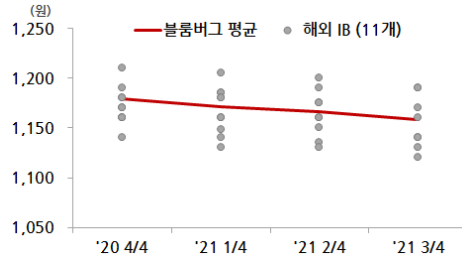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3월 주식시장 급락 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급등세를 보였으나, 점차 안정화 되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함
 -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1년 원/달러 환율의 점진적인 하향세를 전망함

〈그림 I-15〉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I-16〉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주: 2020년 9월 기준

자료: Bloomberg

4. 2021년 국내경제 전망

-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21년 우리나라 GDP가 3% 내외의 제한적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개인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는 2020년 4% 감소에 미치지 못하는 3% 수준의 소폭 회복이 전망됨
 - 설비투자과 수출입은 4~6%의 회복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코로나19의 재확산,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불확실성도 상존하며, 코로나 19 확산이 조기에 종식될 경우 빠른 경기 회복도 가능할 수 있음

〈표 I-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8	2019	2020(F) ¹⁾		2021(F) ¹⁾	
			한국은행 ²⁾	KDI ³⁾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 GDP	2.9	2.0	-1.1	-1.1	3.0	3.1
민간소비	3.2	1.7	-4.3	-4.3	3.1	2.4
설비투자	-2.3	-7.5	5.7	6.0	4.3	4.7
건설투자	-4.6	-2.5	-0.7	0.0	0.5	2.0
지식생산물 투자	4.4	3.0	3.8	3.7	3.9	4.3
상품수출	3.3	0.5	-1.6	-2.2	5.3	3.7
상품수입	2.0	-0.8	-0.6	-0.5	5.9	4.6
실업률	3.9	3.8	4.0	4.0	3.8	4.1
소비자물가	1.5	0.4	0.5	0.5	1.0	0.7
경상수지	775	600	650	624	600	579
상품수지	1,101	769	740	709	730	669
서비스·본원 이전소득수지	-326	-169	-90	-85	-130	-91

주: 1) 2020(F), 2021(F)는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0. 11),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0. 11), 『KDI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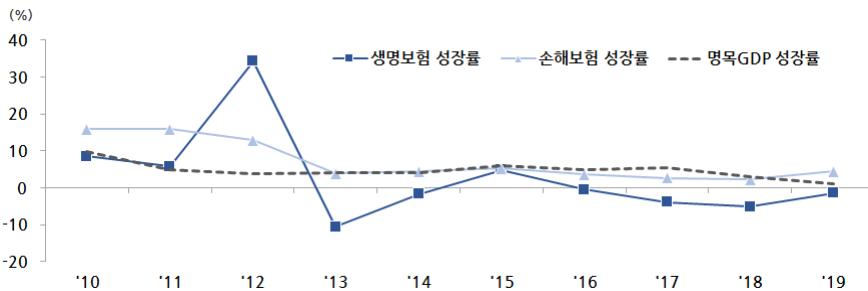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II. 보험산업 주요 동향

1. 코로나19 확산과 보험산업

-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 성장성은 추세적으로 둔화되어 옴
 - 2016년에서 2018년 보험산업 성장률은 명목 경제성장률을 하회하였으며, 특히 생명보험은 2016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향후 저성장·저금리 환경 심화는 보험산업의 장기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1〉 보험산업 장기 성장성 추이(2010~2019년)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의 확산은 실물경제, 금융시장,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침
 -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즉각적인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쇄함
 -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단기적 변동성 확대 후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았으며, 이

과정에서 시증금리가 하락하고 유동성이 급증함

-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4차 산업의 부상이 앞당겨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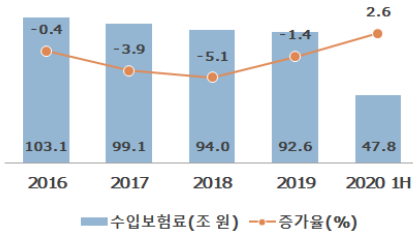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보험수요 측면에서는 예비적 저축 수요 확대로 저축보험이 고성장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로 자동차보험이 고성장하는 등 부정적 충격보다 반사이익이 나타나고 있음
- 경영전략 측면에서는 보험수요 변화에 대응한 외형확대 경쟁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비대면 판매채널이 부상하고 있음
-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금융지주의 수익성 다각화 전략에 따라 은행계 보험회사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2020년 상반기 퇴직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각각 2.6%, 6.9% 성장하면서 이례적인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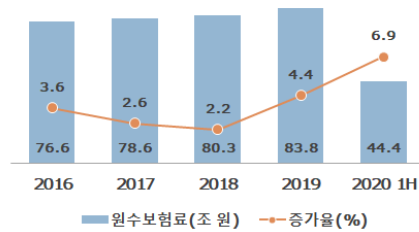
- 생명보험은 4년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고, 손해보험은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그림 II-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II-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2.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 주요 동향

가.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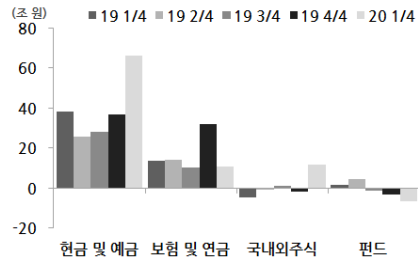
- 생명보험 종목별 성장률을 보면 저축보험이 2020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11.0%, 19.3% 성장하면서 생명보험 전체 성장을 견인함
 -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상품 거래 증감을 살펴보면 현금 및 예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펀드는 감소한 반면 직접 주식투자는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저금리 환경에서 현금 및 예금의 대폭 증가는 경기 불확실성 우려에 따른 예비적 저축 증가로 해석할 수 있음

〈표 II-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증가율	(단위: %)				
	'19 2/4	3/4	4/4	'20 1/4	2/4
사망	4.5	4.4	4.5	4.8	3.6
저축	-5.4	-6.0	-13.4	11.0	19.3
연금	-1.6	-3.6	-4.7	-7.3	4.0
변액	-4.5	-2.8	-4.0	-2.3	-11.3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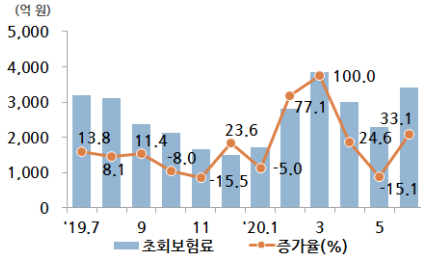
〈그림 II-4〉 가계 금융상품 거래 증감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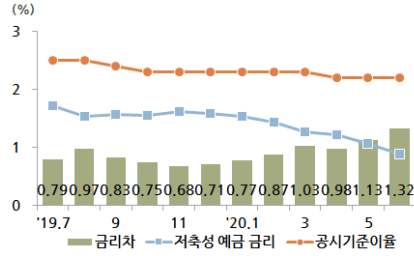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중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 2월부터 저축보험 초회보험료가 급증함
 - 예적금 금리와 보험회사 공시기준이율 차이는 2월 이후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예적금 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저축보험의 상대적인 금리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음

〈그림 II-5〉 저축보험 월별 초회보험료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II-6〉 예적금이율 및 공시기준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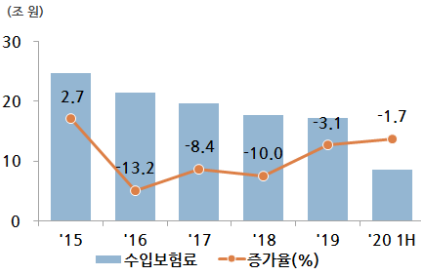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연금보험은 2020년 상반기 수입보험료가 1.7% 감소하였으며, 저축보험과 달리 연금보험은 부진한 모습임

- 급증한 유동성이 연금수요 확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며, 이는 연금보험이 단기저축인 예적금 상품을 대체하기 어려운 장기 노후소득보장 상품이기 때문임
- 연금보험 시장은 노후소득 보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이는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우려 및 요구자본 부담 등에 따른 공급 약화, 세계 혜택 감소, 대체상품 증가 등의 수요 약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임
-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단기 저축에만 머물지 않고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장기 저축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그림 II-7〉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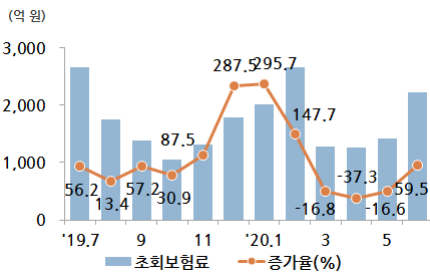
〈표 II-2〉 연금보험 부진의 원인

공급 측면
-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하락 - 장수리스크 요구자본 부담 - 판매 수수료 조정에 따른 판매 유인 약화
수요 측면
-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 - IRP, TDF 등 대체상품 확대

■ 변액보험은 2020년 3월 이후 주식시장의 급반등에도 불구하고 2/4분기 초회보험료가 오히려 4.0%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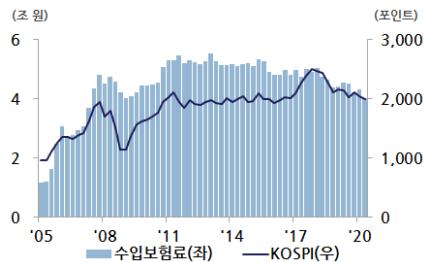
- 금융시장 안정에도 개인 직접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펀드, 변액보험과 같은 간접투자는 부진한 모습임
- 또한 최근 은행권의 사모펀드 부실 판매 이슈로 인한 방카슈랑스의 변액보험 판매 위축도 원인 중 하나임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주식시장 민감도가 둔화되면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임

〈그림 II-8〉 변액보험 월별 초회보험료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II-9〉 주가지수와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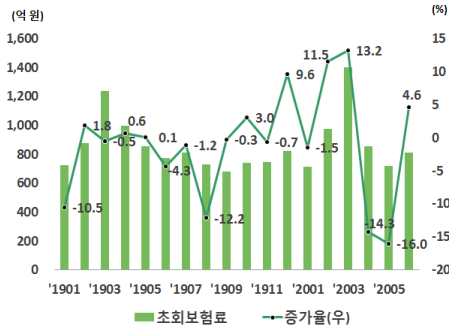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보장성보험은 2020년 2월과 3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절판 마케팅 효과로 고성장하였으나 4월 이후 성장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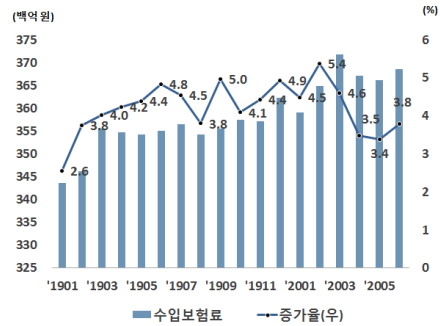
-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2월과 3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보장성보험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절판 마케팅 효과가 코로나19에 의한 영업 위축을 상쇄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 2019년 말 초회보험료 기준 보장성보험의 판매채널 비중은 대면채널인 설계사와 대리점 비중이 78.5%이며, 따라서 절판효과를 제외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을 것임

〈그림 II-10〉 초회보험료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II-11〉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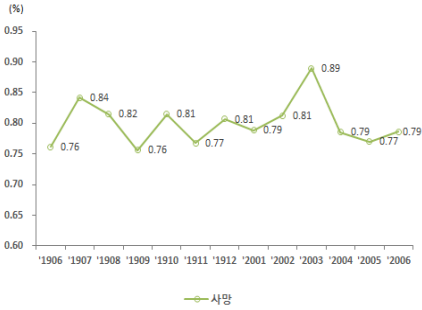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2020년 상반기 월별 해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보장성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모두 3월 해지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월과 5월에는 예년 수준보다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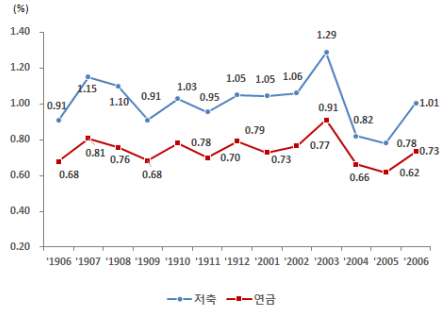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개인보험의 일시적인 해지 증가가 관찰되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해지율은 빠르게 정상화된 것으로 보임

〈그림 II-12〉 보장성보험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II-13〉 연금 및 저축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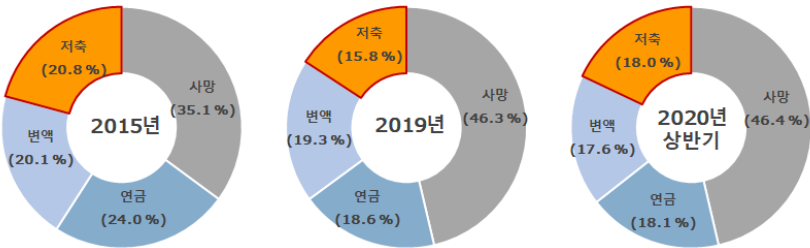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2015년 20.8%에 달하던 저축보험 비중은 2019년 15.8%까지 감소하였으나, 2020년 상반기 저축보험 비중은 확대됨

- 생명보험산업은 저금리 환경과 제도변화에 대응하여 저축보험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음
 - 저축보험은 저금리 환경에서 수익성이 낮고, 새로운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하에서 자본변동성 부담이 큰 상품이기 때문임
-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저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이차역마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그림 II-1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 변화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나. 손해보험

- 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을 보면, 자동차보험이 2020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9.6%, 13.4% 성장하며 손해보험 전체 성장을 견인함
 -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단행하였고, 이로 인해 3월 이후 자동차 등록 대수는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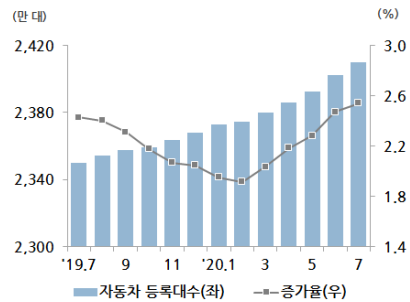
〈표 II-3〉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단위: %)

증가율	'19 2/4	3/4	4/4	'20 1/4	2/4
장기보장	7.5	8.1	8.1	8.5	7.2
장기저축	-14.9	-14.5	-16.4	-17.2	-18.0
자동차	4.0	7.8	7.3	9.6	13.4
일반	6.6	7.7	-1.8	16.6	6.7

주: 장기저축에는 개인연금도 포함됨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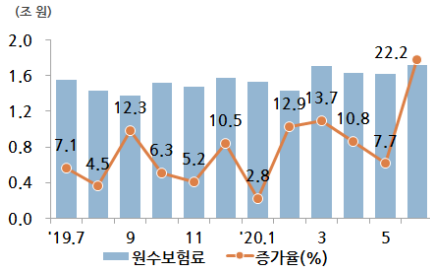
〈그림 II-15〉 자동차 등록 대수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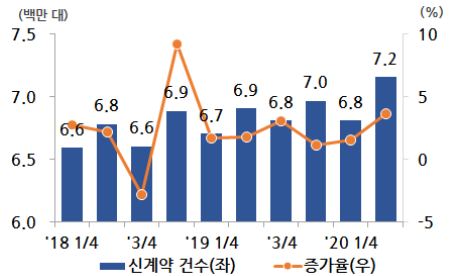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 월별 원수보험료 추이를 보면, 2020년 2월부터 원수보험료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2020년 2월 보험료 인상 효과와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더해진 결과이며, 특히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조치 종료로 앞둔 6월 자동차보험료는 22.2% 급증함
 - 2019년 요율조정에도 자동차 정비요금 증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일용임금 인상 등 원가 상승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2020년 2월 약 3.5% 수준의 자동차보험료 요율조정이 이루어짐
 -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신계약 건수는 2/4분기 급증함

〈그림 II-16〉 자동차보험 월별 원수보험료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II-17〉 자동차 책임보험 신계약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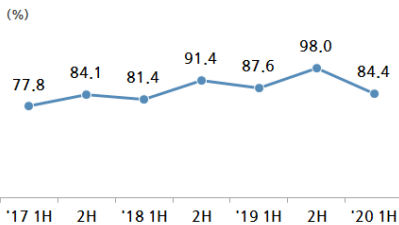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2020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운행 감소 및 보험료 증가로 개선되었으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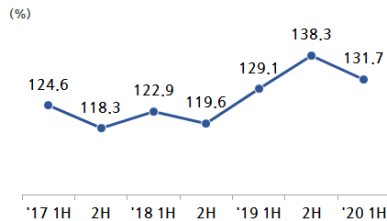
- 그동안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은 손해보험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옴
-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일시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그림 II-18〉 자동차보험 손해율



주: 손해율은 경과손해율임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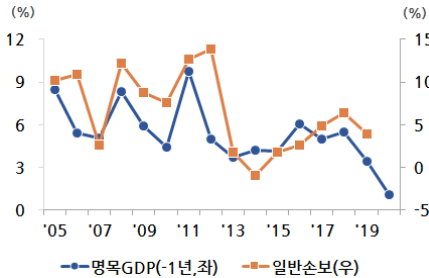
〈그림 II-19〉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주: 손해율은 위험손해율임
자료: 정성희(2020),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실태와 시사점」, 『KiRi Report』,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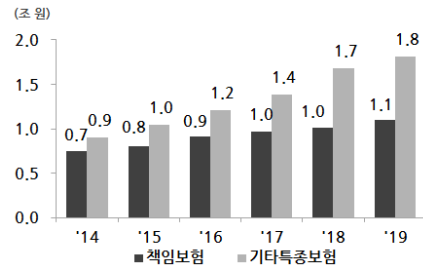
- 2020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이외에도 일반손해보험의 고성장이 두드러지며, 일반손해보험은 2020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16.6%, 6.7% 고성장 하였음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이 명목경제성장률에 1년 정도 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일반손해보험의 보장기간이 보통 1년으로 경기 충격 후 보험가입 및 보험료 조정에 1년 정도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2019년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손해보험은 이례적으로 고성장 중임
 - 신규위험에 대한 담보확대로 배상책임보험, 농산물재해보험, 휴대폰보험 등 기타특종보험 등이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임

〈그림 II-20〉 일반손해보험과 명목GDP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II-21〉 책임보험 및 기타특종보험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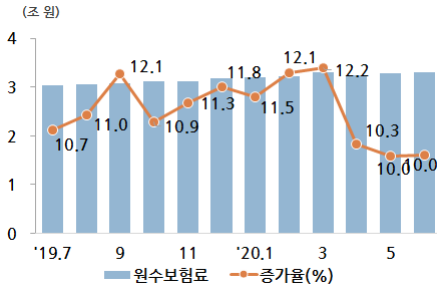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2020년 상반기 장기 질병·상해보험은 초회보험료 증가세 둔화로 성장세가 소폭 약화되었으며, 저축성보험은 부진을 지속함
 - 질병·상해보험의 과열 경쟁이 진정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채널의 영업환경 악화도 초회보험료 둔화에 영향을 미침
 -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반적인 의료 이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불투명한 상황임
 - 저축성보험은 생명보험의 저축보험과 달리 시중 유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소 추세를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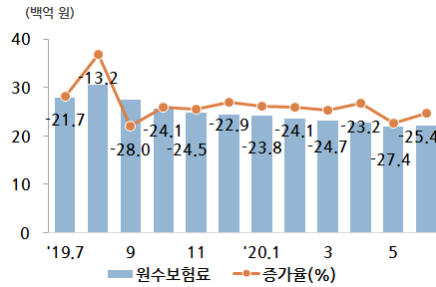
- 손해보험회사는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에 따라 저축성보험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오고 있음

〈그림 II-22〉 장기 질병·상해보험 월별 원수보험료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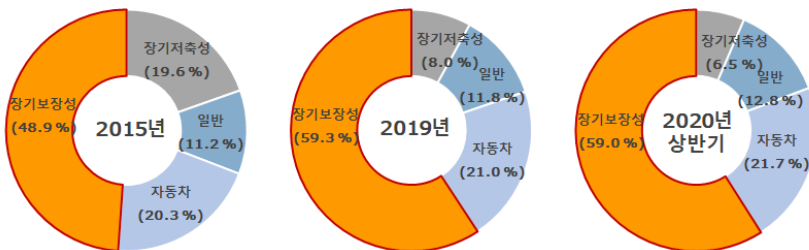
〈그림 II-23〉 장기 저축성보험 월별 원수보험료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손해보험산업은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저축보험 비중을 축소하고, 장기보장성보험, 일반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전환 중임
 - 장기보장성보험과 일반보험 비중은 2015년 각각 48.9%, 11.2%에서 2020년 상반기 각각 59.0%, 12.8%까지 확대됨
 - 건강보험 경쟁과열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도 있으나, 새로운 위험에 대한 공사협력 모델 확대 기대감도 상존함

〈그림 II-24〉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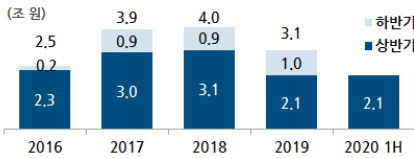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다. 2020년 상반기 수익성

■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은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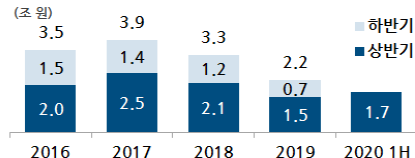
-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2019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손해보험 당기순이익도 2018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2020년 상반기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여전히 2018년 상반기 수준을 하회하는 모습임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ROA는 2018년과 2019년 연속 하락한 후 2020년 상반기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코스피지수 대비 보험산업지수의 낮은 성과는 보험산업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시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II-25〉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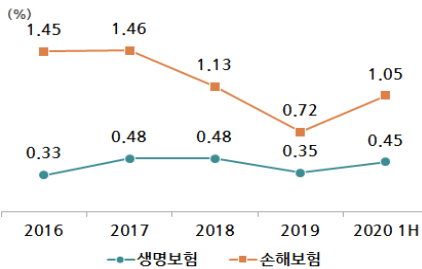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II-26〉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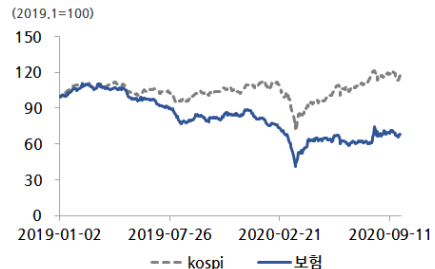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II-27〉 보험산업 ROA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그림 II-28〉 상장 보험회사 추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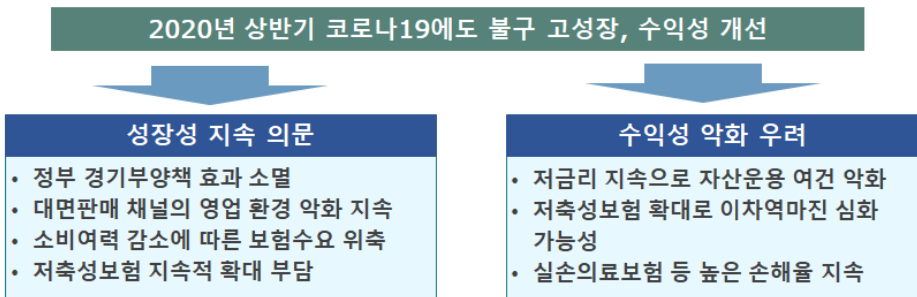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한국거래소

3. 성장성 및 수익성 평가

-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은 코로나19 확산 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고성장 하였으나 향후 성장성이 지속될지 의문이며, 수익성 악화 우려도 여전한 것으로 평가됨
 - 유동성 확대가 단기 저축 수요 이상의 구조적 보험수요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한시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한 자동차보험 고성장은 지속성이 낮아 보임
 -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소비여력 감소에 따른 보험수요 위축 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2020년 상반기 수익성 또한 소폭 개선되었지만, 저금리로 자산운용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등의 높은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II-29〉 보험산업 성장성 및 수익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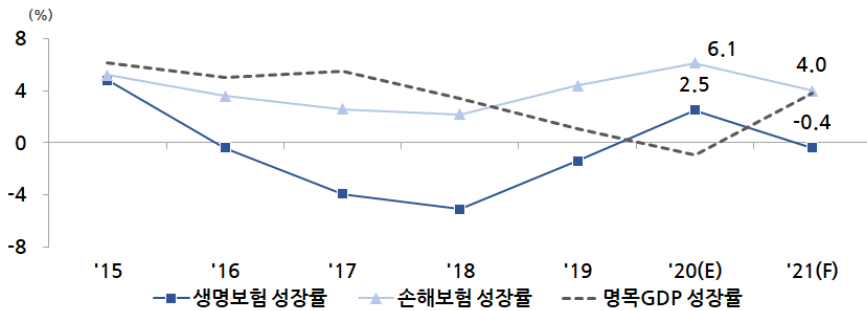


Ⅲ. 2021년 보험산업 전망

1. 보험산업 보험료 전망 개요

- 2021년 보험산업은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소멸, 제한적 경기회복 등으로 저성장 추세 회귀가 전망됨(퇴직연금 제외)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보험산업의 고성장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큼
 -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은 2020년 2.5%에서 2021년 -0.4%로 역성장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며, 손해보험은 2020년 6.1%에서 2021년 4.0%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Ⅲ-1〉 2021년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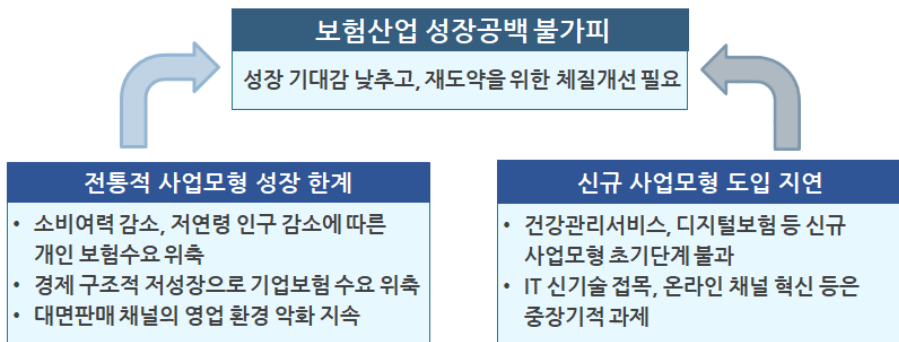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원활한 사업모형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보험산업은 성장공백에 직면하고 있다고 판단됨
 - 보험산업의 전통적 사업모형은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개인보험의 주 수요층인 저연령 인구의 감소는 전통적 개인보험 수요의 위축을 야기하고 있음
 - 기업보험 또한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지속으로 수요 위축이 불가피함
 - 판매채널 측면에서도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전통적 판매채널 구조의 재검토가 필요함
- 그러나 전통적 사업모형을 대체할 신규사업모형의 도입은 지연되고 있음
- 보험산업의 대표적 신규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건강관리서비스, 디지털보험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함
 - IT 신기술 도입을 통한 보험산업 전반의 효율화, 온라인 채널 혁신 등은 아이디어 단계에 머물고 있음
- 보험산업은 이 시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재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 III-2〉 보험료 전망 개요



2. 보험산업 초회보험료

- 생명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2020년 일시납 저축성보험 확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1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 전환이 전망됨

- 일반 보장성보험¹⁾ 초회보험료는 완만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CAGR²⁾ -1.0%)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채널 약화, 1인 가구 증가, 종신보험 시장 정체 등으로 큰 폭의 신규수요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일반 저축성보험³⁾ 초회보험료는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의 일시납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CAGR 7.0%), 올해 큰 폭의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1년에는 소폭 감소가 예상됨
 - 저금리로 다른 금융권 대비 일시적인 금리경쟁력 상승,⁴⁾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이슈 부각⁵⁾ 등으로 저축성보험에 대한 관심은 확대되고 있음
 -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금융시장 안정 등으로 변액저축성보험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CAGR 6.8%)
-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2021년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가 전망됨
- 장기손해 질병 및 상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최근 몇 년 동안 판매경쟁 심화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CAGR 17.1%), 2020년과 2021년에는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임
 - 장기손해 운전자, 재물, 통합보험 초회보험료는 교통사고 배상책임 강화에 따른 운전자보험의 신규 가입 확대에 힘입어 증가하고 있음(CAGR 4.6%)
 - 장기손해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금리하락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CAGR -25.2%)

1)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 사망보험(변액종신 등 제외) 등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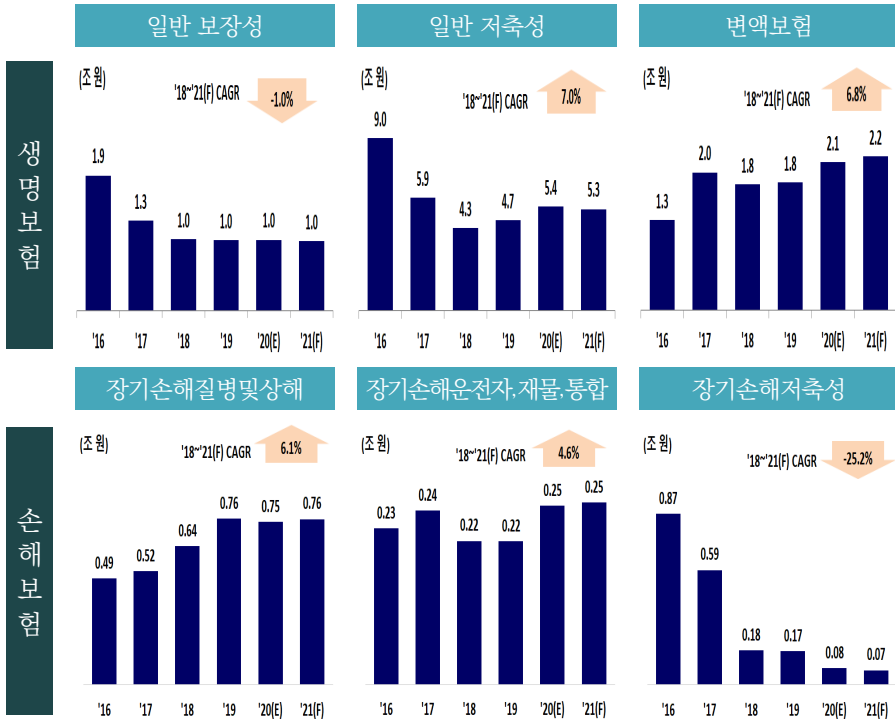
2) CAGR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의 초회보험료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임

3)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제외)을 의미함

4) 저축성보험의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락 속도의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타금융권 대비 소폭의 높은 금리를 유지했음

5) 옵티머스 펀드, 라임 펀드 등으로 인한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가 확대됨

〈그림 III-3〉 종목별 초회보험료 전망



주: 1) 초회보험료는 1회차 보험료로 일시납 보험료와 비일시납 보험료를 포함함

2) CAGR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지난 10년간 보험산업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회보험료의 수입보험료 성장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음

- FY2010과 2019년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비중을 비교해보면 보장성보험만이 2.0%에서 2.3%로 확대되었고, 일반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은 각각 11.7%p, 2.5%p 축소됨
-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장기 질병 및 상해보험과 장기 운전자, 재물, 통합형 보험의 초회보험료 비중이 각각 0.4%p, 0.8%p 축소되었고, 장기 저축성보험은 FY2010 19.2%에서 2020년 4.9%로 대폭 축소됨
- 초회보험료 비중 축소는 보험회사 수입보험료가 새로 유입되는 계약보다는 기

존 계약에서 비롯되는 계속보험료 위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초회보험료의 수입보험료 성장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뜻함

〈표 III-1〉 보험산업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

(단위: %)

구분		FY2010	2015	2019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2.0	5.6	2.3
	일반저축성보험	26.6	22.9	14.9
	변액보험	12.8	6.2	10.3
손해보험	장기 질병 및 상해	2.5	2.1	2.1
	장기 운전자, 재물, 통합형	2.4	1.5	1.6
	장기 저축성	19.2	14.0	4.9

주: 종목별 수입보험료에서 가운데 초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한편 초회보험료 중 일시납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며, 일시납 초회보험료의 비중 확대는 초회보험료 변동성을 확대하고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
 - 생명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 중 일시납 초회보험료 비중은 FY2010 9.9%에서 2019년 24.3%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일반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각각 1.8%p, 11.6%p 확대됨
 -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 질병 및 상해보험은 일시납 비중이 FY2010 0.8%에서 2019년 0.3%로 축소되었으나 장기 운전자, 재물, 통합형과 장기 저축성보험 일시납 비중은 각각 1.3%p, 26.7%p 확대됨
 - 초회보험료 중 일시납보험료 비중 확대는 보험회사의 판매 전략에 따라 초회보험료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이며, 초회보험료의 변동성 확대는 초회보험료 전망의 불확실성을 확대함

〈표 III-2〉 보험산업 종목별 일시납 초회보험료 비중

(단위: %)

구분		FY2010	2015	2019
생명 보험	보장성보험	9.9	68.4	24.3
	일반저축성보험	92.6	94.2	94.4
	변액보험	81.8	83.7	93.4
손해 보험	장기 질병 및 상해	0.8	1.9	0.3
	장기 운전자, 재물, 통합형	0.3	1.8	1.6
	장기 저축성	63.7	73.6	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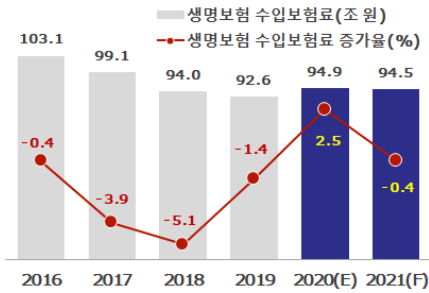
주: 종목별 초회보험료 가운데 일시납 초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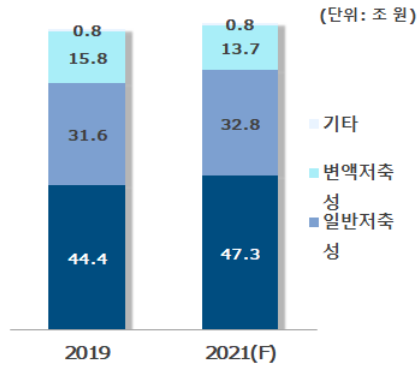
가. 개요

- 2021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0.4% 감소할 전망이다
 - 보장성보험은 수요감소, 판매규제 강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며, 일반저축성보험은 연금보험의 감소세 지속, 저축보험의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 전망됨
 - 일반 저축성보험은 2020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변액저축성보험은 금융시장 안정으로 초회보험료 증가가 예상되나, 투자자들의 단기 직접투자 선호 현상으로 수입보험료 감소가 전망됨

〈그림 III-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그림 III-5〉 생명보험 종목별 규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III-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2018		2019		2020(E) ¹⁾		2021(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전체 (퇴직연금 제외)	94.0	-5.1	92.6	-1.4	94.9	2.5	94.5	-0.4
보장성보험 ²⁾	42.8	2.5	44.4	3.9	46.0	3.4	47.3	2.9
저축성보험 ³⁾	50.4	-10.8	47.4	-6.0	48.2	1.7	46.5	-3.6
일반저축성	33.6	-13.5	31.6	-5.7	33.7	6.5	32.8	-2.6
변액저축성	16.9	-5.0	15.8	-6.5	14.5	-7.9	13.7	-6.0
기타 ⁴⁾	0.8	-0.4	0.8	0.6	0.8	-1.7	0.8	0.2
퇴직연금	16.9	13.2	24.6	46.0	27.1	10.0	31.8	17.6
생명보험 전체 (퇴직연금 포함)	110.8	-2.7	117.3	5.8	122.0	4.1	126.3	3.5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

3) 저축성보험에는 일반저축성(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과 변액저축성(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을 포함함

4)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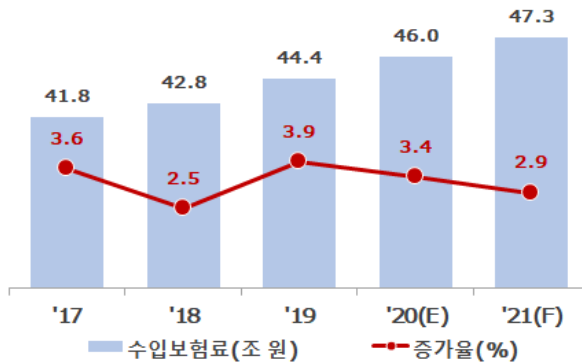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보장성보험⁶⁾

■ 보장성보험은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지속, 판매규제 강화 등으로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민간소비의 제한적 회복으로 보험료가 고가인 종신보험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라 설계사 및 대리점 영업환경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저해지·무해지 상품 판매규제, 수수료 제도 변화, 2020년 절판효과 소멸 등의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함
- 한편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관심 확대, 보험회사의 보장성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 노력 등의 성장요인도 존재함

〈그림 III-6〉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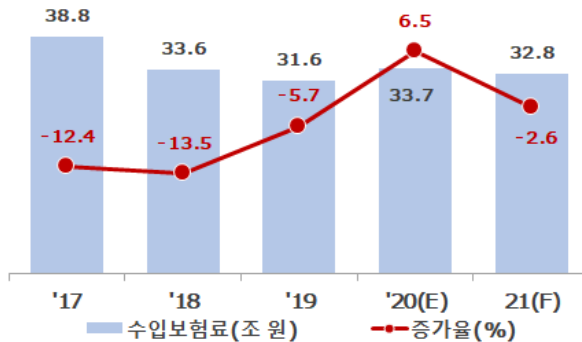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6)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을 포함함

다. 일반저축성보험⁷⁾

- 일반저축성보험은 연금보험의 감소세 지속과 저축보험의 기저효과로 2.6% 감소할 전망이다
 - 연금보험은 2021년에도 연금보험 시장 수요, 공급측면의 부정적 요인들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수입보험료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저축보험은 단기 유동성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차역마진 확대 우려로 추가적인 규모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한 2020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입보험료의 소폭 감소가 전망됨

〈그림 III-7〉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변액저축성보험⁸⁾

- 변액저축성보험은 2021년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으로 초회보험료 증가가 기대되나, 계속보험료의 지속적 감소로 수입보험료는 6.0%의 감소가 전망됨
 - 금융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직접투자 선호에 따라 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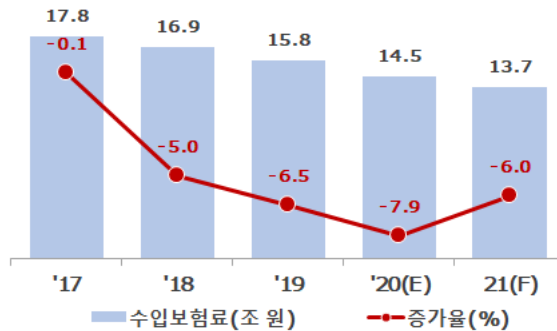
7) 저축성보험은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을 포함함

8) 변액저축성보험은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을 포함함

보험 초회보험료의 대폭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방카슈랑스 채널의 변액보험 판매 위축 등 판매 채널의 부정적 여건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미약한 경기회복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도 존재함

〈그림 III-8〉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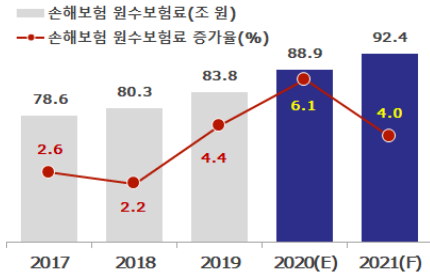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 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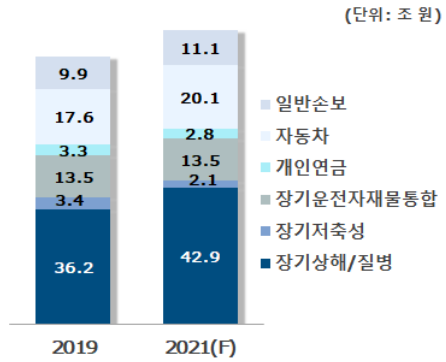
가. 개요

- 2021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보험은 상해·질병, 운전자보험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저축보험은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 효과와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소멸로 성장세 둔화가 전망됨
 - 일반보험은 건설투자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신규 리스크 담보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II-9〉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그림 III-10〉 손해보험 종목별 규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III-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8		2019		2020(E) ¹⁾		2021(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손해보험 전체 (퇴직연금 제외 시)	80.3	2.2	83.8	4.4	88.9	6.1	92.4	4.0
장기손해보험	50.6	3.0	53.1	5.0	55.8	5.2	58.5	4.7
개인연금	3.5	-5.0	3.3	-6.4	3.0	-9.0	2.8	-7.3
자동차보험	16.7	-0.8	17.6	5.1	19.5	11.2	20.1	2.9
일반손해보험	9.5	6.3	9.9	3.9	10.5	7.1	11.1	5.1
퇴직연금	10.8	10.2	11.8	9.3	12.6	6.7	13.6	8.4
손해보험 전체 (퇴직연금 포함 시)	91.1	3.1	95.6	5.0	101.5	6.2	106.1	4.5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장기손해보험

- 2021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질병, 운전자 보험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
 이나, 저축보험의 부진으로 4.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표 III-5〉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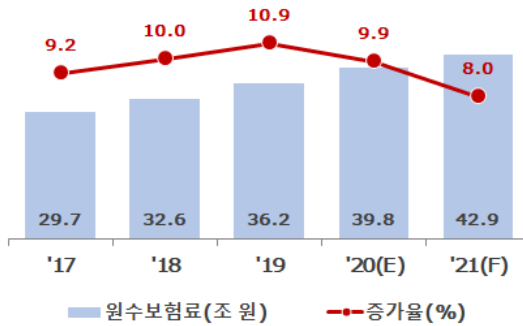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E) ¹⁾		2021(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해보험	50.6	3.0	53.1	5.0	55.8	5.2	58.5	4.7
질병 및 상해보험	32.6	10.0	36.2	10.9	39.8	9.9	42.9	8.0
저축성보험	4.5	-28.8	3.4	-23.7	2.6	-23.4	2.1	-21.3
운전자·재물 등	13.4	2.5	13.5	0.3	13.4	-0.2	13.5	0.2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장기 보장성보험 중 질병·상해보험 성장세는 8%로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 질병·상해보험은 보장확대 경쟁이 완화되면서 초회보험료 유입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갱신보험료 증가에 의한 계속보험료 중심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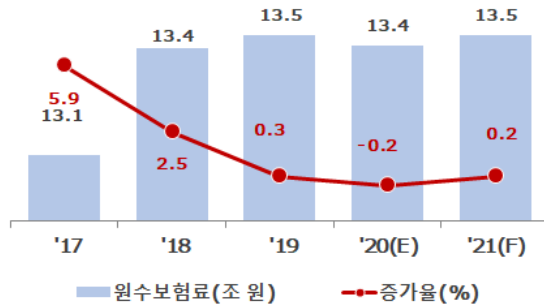
〈그림 III-11〉 장기 상해·질병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배상책임 강화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재물보험과 통합보험은 특별한 성장요인이 없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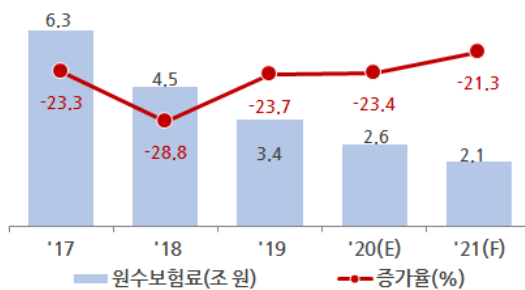
〈그림 III-12〉 장기 운전자·재물·통합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의 보장성 중심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21.3% 감소할 전망이다
 - 손해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저축성보험 규모는 2015년 이후 대폭 감소함
 - 다만, 방카슈랑스 채널의 저축보험 확대 영향으로 일부 회사의 보험료 급증 가능성도 상존함

〈그림 III-13〉 장기 저축성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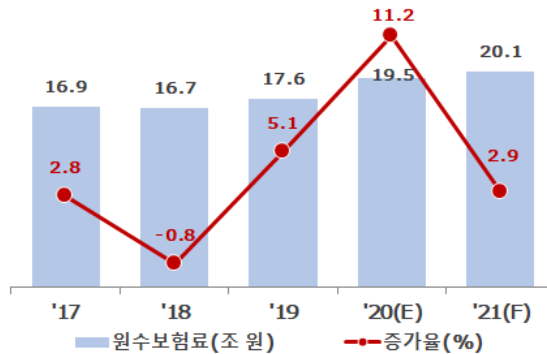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효과 소멸,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둔화로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2020년 2월 보험료 인상 효과는 2021년부터 소멸될 것으로 보이며, 한시적으로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도 둔화될 전망이다
 - 한편,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보험 확대 등도 보험료 감소 요인임

〈그림 III-14〉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일반손해보험

- 일반손해보험은 해상, 보증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특종보험의 고성장으로 5.1%의 양호한 성장이 전망됨
 - 보증보험은 건설투자의 회복 지연으로 1.2% 성장이 전망됨
 - 해상보험은 위성보험의 기저효과, 수출입 물동량 감소, 조선수주 감소 등으로 2.3% 감소가 전망됨

- 특종보험은 책임보험 확대, 농산물재해보험, 휴대폰보험 등 신규 담보 확대로 6.9% 성장이 전망됨

〈표 III-6〉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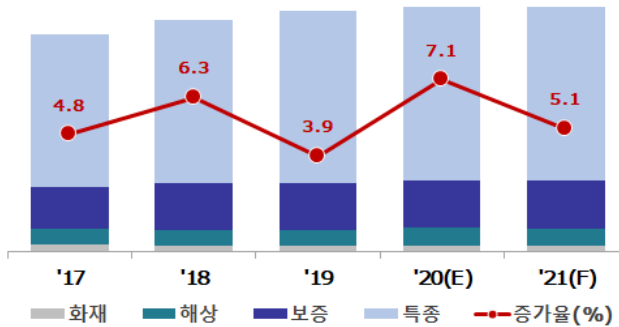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구분	2018		2019		2020(E) ¹⁾		2021(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일반손해보험	9.5	6.3	9.9	3.9	10.5	7.1	11.1	5.1
화재	0.3	-7.2	0.3	-1.2	0.3	-1.0	0.3	-0.8
해상	0.6	-7.6	0.6	0.8	0.7	17.7	0.7	-2.3
보증	2.0	12.1	1.9	-1.0	2.0	1.7	2.0	1.2
특종	6.7	6.8	7.0	5.9	7.6	8.0	8.1	6.9

주: 1)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5〉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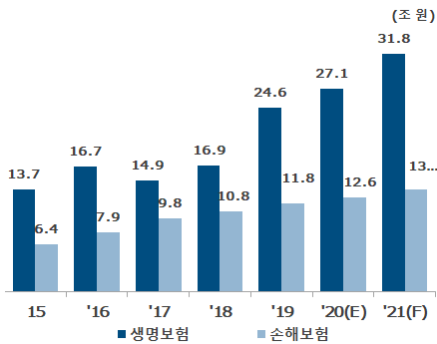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5. 보험권 퇴직연금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17.6%(31.8조 원), 손해보험 8.4%(13.6조 원)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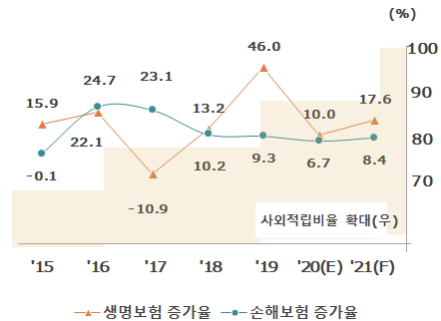
- 퇴직연금은 IRP 시장 확대, 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확대 등의 성장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21년 말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로 확대함
- 반면 적립금에 대한 요구자본 부담에 따른 소극적인 판매 전략, 경기둔화에 따른 신규고용 감소, 임금상승률 둔화 등은 부정적인 요인임
- 다만,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보험료가 12월 일시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전망에 불확실성이 큼

〈그림 III-16〉 퇴직연금 수입(원수)보험료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I-17〉 사외적립비율 확대 및 퇴직연금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자료: 금융감독원

IV. 경영 및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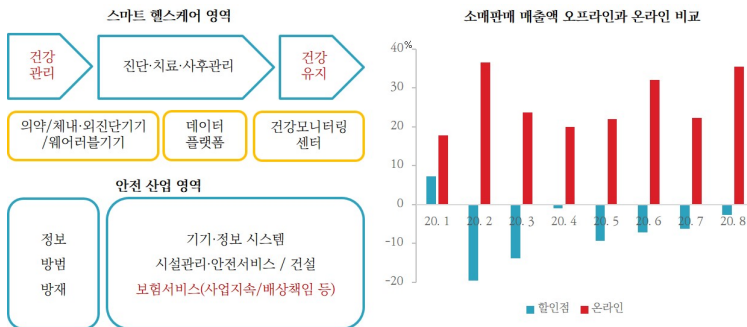
1. 진단 및 과제 도출

■ 우리 경제가 탈성장(Post Growth)·디지털(Digital) 경제로 전환하고 있어 보험산업은 구조적인 혁신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

○ 비대면 경제활동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보험산업은 소비자와의 비대면 접점을 확대하면서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상품 개발·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 코로나19 이후 소비 활동은 비대면(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 건강과 안전 보장에 대한 사회의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헬스케어 서비스와 공공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산업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기업의 영업중단 손실 및 배상책임 보장 수요도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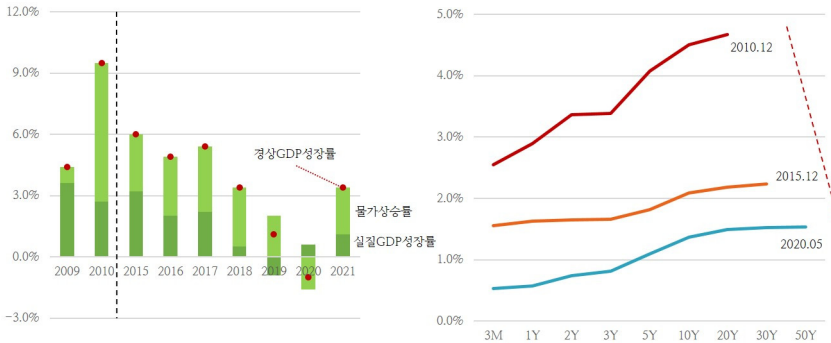
〈그림 IV-1〉 헬스케어와 안전산업의 부상(좌) 및 온라인 거래 증가(우)



주: 정성희 외(2020); 박광순(2017); 기획재정부(2020)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은행 ECOS

- 한편, 우리 경제는 2020년 현재 고령인구 비율 16.1%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한 가운데 저성장·저금리 심화를 경험하면서 보험산업은 기존의 사업모형과 전략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임
 - 경제성장률은 과거 추세로의 회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명목성장률과 동행 또는 후행하는 보험료성장률 역시 둔화되거나 정체되고 있음
 - 보험부채의 크기를 좌우하는 시장금리는 지난 10년간 금리수준이 크게 하락하고 수익률곡선의 기울기도 상당히 완만한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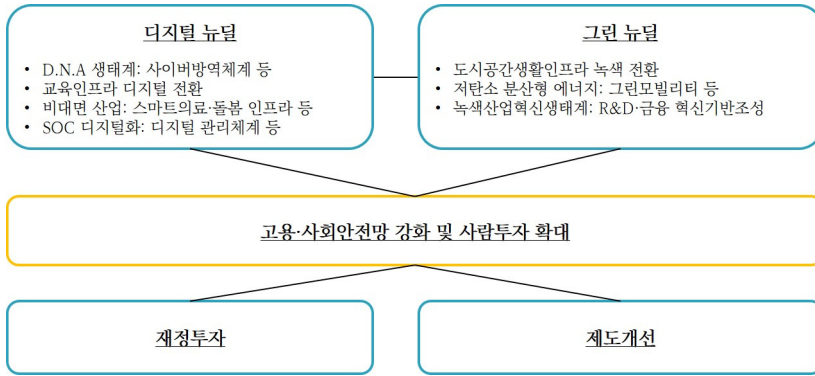
〈그림 IV-2〉 경제성장률(좌) 및 국채수익률 기간구조(우) 추이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은행 ECOS

- 최근 정부는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제시함
 -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람투자 확대의 사람중심 포용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재정투자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2+1’ 정책방향을 제시함
 - 디지털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과 확산을 목표로 삼고,
 - 그린 뉴딜은 경제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정책목표를 삼음

〈그림 IV-3〉 한국판 뉴딜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7. 14),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

- 이에 ‘사업재조정(Rebuilding)’과 ‘협력 및 경쟁(Coopetition)’을 통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보험산업의 정책 및 경영과제로 제시함
 - 사업재조정의 세부과제로 계약 이전 인프라 구축, K-ICS 도입 등 위기대응력 강화, 상품개발 등의 위험인수능력 강화를 실천과제를 제시함
 - 한편,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대응하여 장기계약 상대방인 소비자, 아웃소싱 판매채널, 재난 등 거대위험의 협력자인 정부 및 지자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새로운 보험생태계 조성 및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할 것을 제시함

〈표 IV-1〉 정책 및 경영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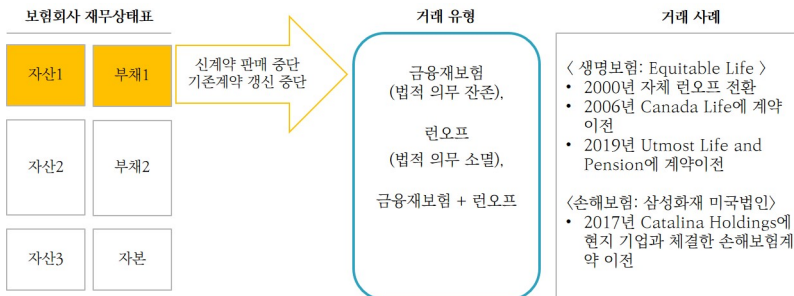
도전 과제	세부 과제
사업재조정 (Rebuilding)	가) 계약 이전 인프라 구축 나) 위기대응력 강화 다) 위험인수능력 강화
협력과 경쟁 (Coopetition)	라) 소비자 접점 확대 마) 공·사 협력 강화 바) 소비자 신뢰 제고

2. 세부 과제

가. 계약 이전 인프라 구축

- 저성장·저금리 환경과 자본·회계 규제 강화에 대응하려면 부채조정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시장 인프라로 계약 이전을 받아줄 전문 보험회사(Run-off Platform)의 도입을 포함한 계약 이전 규제의 정비가 필요함
 - 보험부채를 유지한 채 시가평가와 위험기준강화에 대응하려면 지속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하나 현재의 저수익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음
 - 보험부채를 조정하려 해도 금융재보험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계약 이전은 포괄 이전만 가능한 상황이므로 일부 부채만 이전하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함

〈그림 IV-4〉 신규판매·갱신 중단된 잔존계약(Run-off)의 이전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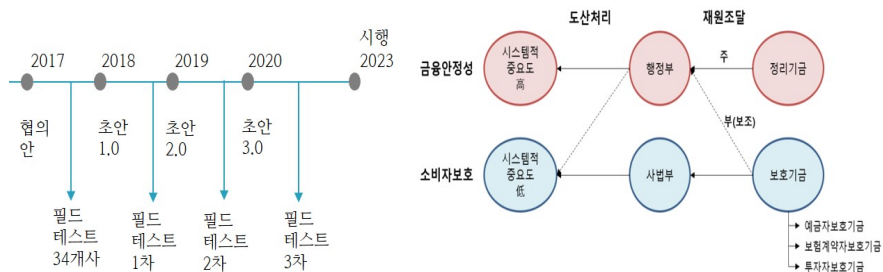
자료: 김석영(2020), 『잔존계약 거래와 시사점』, 이슈보고서 2020-6, 보험연구원

나. 위기대응력 강화

-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려면 보험 회사의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유도하고,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가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계약 이전에 기초하여 예금보험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현행 K-ICS 로드맵은 보험회사의 선제적인 위험관리를 유도하고 보험산업이 K-ICS 도입 이후의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신속한 정리와 적립금 보장 기준으로 설계된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느린 정리와 보험금 보장 기준의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을 보유한 선진 보험시장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기금을 보유했음에도 보험소비자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그림 IV-5〉 K-ICS 로드맵(좌)과 예금보험·정리제도 평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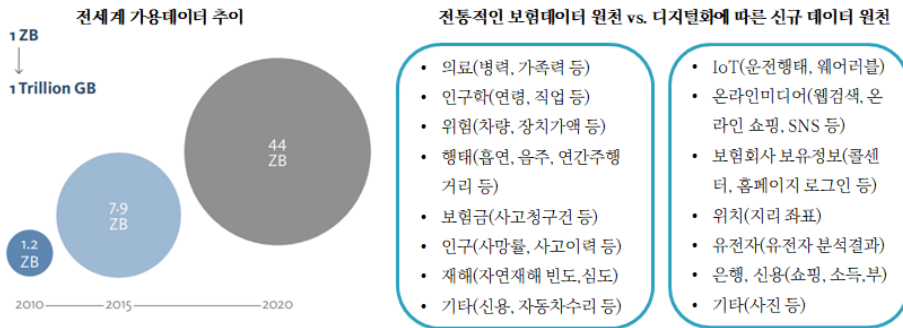


자료: 황인창 외(2020),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20-5, 보험연구원

다. 위험인수능력 강화

- 디지털 환경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공급 혁신을 촉진하고, 연금 및 재보험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여 보험산업의 위험인수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명·익명 정보와 보건·의료정보 개방 등 빅데이터 환경에서 보험산업의 실질적인 보험상품 개발과 공급을 촉진하는 방향의 규제 개선이 필요함
 - 전 세계적으로 가용 데이터 규모는 10년 전에 비해 44배 증가함
 - 그러나 공공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 제약이나 신규 데이터 활용에 보수적인 기존 감독관행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한편,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연금을 금융저축상품으로 접근함으로써 장수 위험관리 측면의 거시적인 연금정책이 부재한 결과를 초래함
 - 저축상품의 수수료 및 공시, 세제 개편은 장수위험을 관리하는 연금시장의 위축과 더불어 연금전환옵션 종신연금이 연금수요를 흡수하는 부작용을 초래함
 - 금융재보험 도입 등 재보험의 역할이 주목됨에 따라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양 측면에서 재보험산업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IV-6〉 전 세계 가용데이터(좌)와 보험회사 데이터 원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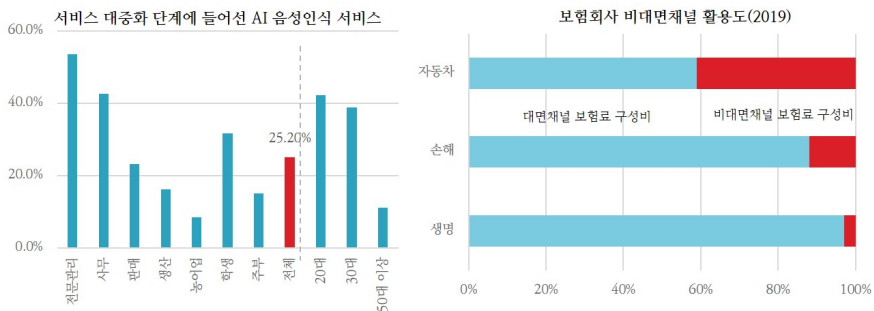


자료: EIOPA(2019), "Big Data Analytics in Motor and Health Insurance: A Thematic Review"

라. 소비자 점점 확대

- 보험산업은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소통방식에 맞춰 판매채널 변화를 모색해야 하므로 비대면·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함
 - 소비자 4명 중 1명은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익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이에 AI 및 머신러닝(ML) 활용 필요성은 커지고 있고, 온라인플랫폼 지배력이 큰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제기하는 상황임

〈그림 IV-7〉 소비자의 AI 친숙도와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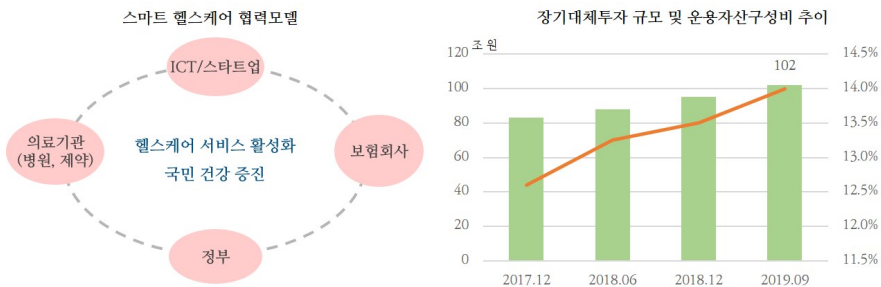
자료: 인터넷진흥원(2020),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마. 민·관 협력모델 강화

■ 우리 사회의 재난, 건강, 소득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와 실물경제 기여를 높이는 민·관 협력모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난 및 감염병과 관련하여 사업운영 중단(휴지)위험, 사이버위험, 배상책임위험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와 민간보험 협력모델이 보다 지속가능한 재난대비 위험보장모델이 될 것임
-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정부 및 의료기관, ICR기업과 보험회사 간 협력모델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의 도입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적용에는 보험설계사의 직업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19년 현재 보험산업 자산운용의 14%가 해외의 인프라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되고 있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등으로 인프라 자산이 확대된다면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수요와 실물경제 기여 모두에서 바람직함

〈그림 IV-8〉 스마트 헬스케어의 민·관 협력모델과 보험산업의 장기대체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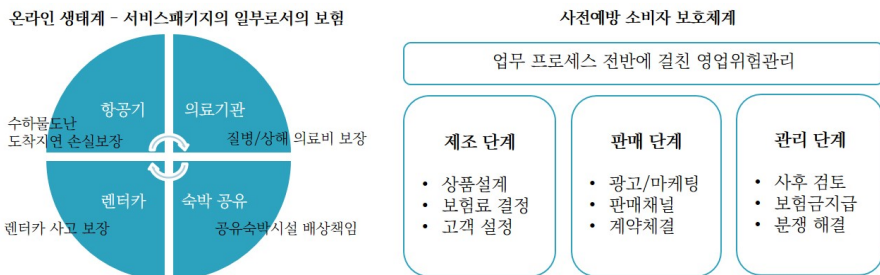


자료: KPMG(2019), 『글로벌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김해식 외(2020),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 재무건전성』, CEO Report, 보험연구원

바. 소비자 신뢰 제고

- 디지털 환경의 소비자 행태에 대한 이해와 AI 활용에 대한 인간의 감시 기준, 판매채널의 판매책임, 소비자 분쟁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이 필요함
 - 보험은 전통적으로 보험금 지급에 한정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소비자 경험 제공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환경은 그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 반면,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제공은 여러 서비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협상력 축소는 물론 감독당국의 모니터링도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감독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특히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한 빅테크 판매채널의 판매책임 문제, AI와 ML을 활용한 알고리즘에 의한 서비스는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알고리즘 감독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음
 - 또한 소비자와 보험회사 및 판매채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별 영업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음

〈그림 IV-9〉 온라인플랫폼의 보험 공급과 사전예방 영업위험 감독



자료: EIOPA(2020), "Consumer Protection Issues on Travel Insurance"; EIOPA(2020), "Risk-based Consumer Protection"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해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현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동향분석실 2018.11
- 2018-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8.12
- 2018-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창희·홍민지 2018.12
- 2018-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8.12
- 2018-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김해식 2018.12
- 2018-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8.12

- 2019-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김범 2019.1
- 2019-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이승준·정인영 2019.8
- 2019-3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금융소비자연구실 2019.10
- 2019-4 압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 백영화·박정희 2019.10
- 2019-5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 / 정세창 2019.10
- 2019-6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 홍지민 2019.10
- 2019-7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 김석영·이규성 2019.11
- 2019-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9.11
- 2019-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 양승현·손민숙 2019.11
- 2019-10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9.12
- 2019-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 강성호·김혜란 2019.12
- 2019-12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 송인정 2019.12
- 2019-13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 정원석·김석영·정인영 2019.12
- 2020-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 송운아·한성원 2020.1
- 2020-2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 강화와 퇴직연금 관리 / 김세중·김혜란 2020.4
- 2020-3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 정성희·황현아·홍민지 2020.6
- 2020-4 일본 생명보험설계사의 지위와 조직운영 / 정봉은·이창성 2020.8
- 2020-5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 황인창·김해식·이승준·김동겸·안소영 2020.9
- 2020-6 보험영업 생태계 건전화를 위한 법인보험대리점 혁신방안 / 정세창·김대환 2020.9
- 2020-7 보험회사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 한상용·문혜정 2020.10
- 2020-8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양승현·박정희 2020.12
- 2020-9 주요국의 자동차보험제도: 배상책임법제 및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 황현아·손민숙 2020.12
- 2020-10 사회적 신뢰와 보험 / 성영애·김민정 2020.12
- 2020-11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해외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전용식·양승현·김유미 2020.12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중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

- 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

- 정봉은·김유미 2016.2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

-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종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계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 20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기승도·홍민지 2019.5

■ 이슈보고서

- 2019-1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 정성희·문혜정 2019.10
- 2020-1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 윤성훈 2020.1
- 2020-2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 김동겸 2020.3
- 2020-3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정성희·이아름 2020.6
- 2020-4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 이상우 2020.6
- 2020-5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강성호·정인영 2020.7
- 2020-6 잔존계약 거래와 시사점 / 김석영·이소양 2020.8
- 2020-7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 판단기준 / 양승현 2020.9

- 2020-8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 윤성훈 2020.9
 2020-9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상화를 위한 과제: 상품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 정성희·문혜정 2020.12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2018-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 김세환 2018.12
 2018-3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상우 2018.12
 2020-1 공제보험 현황 조사 / 최창희·홍민지 2020.4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제 11호 201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9.1
 제 12호 201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20.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 KIRI, 2018.8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9 / KIRI, 2019.8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20 / KIRI, 2020.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 KIRI, 2018.2
 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 KIRI, 2018.5
 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 KIRI, 2018.8
 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 KIRI, 2018.12

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 KIRI, 2019.2
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 KIRI, 2019.4
제2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9/ KIRI, 2019.10
제3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9/ KIRI, 2019.12
제3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9/ KIRI, 2020.2
제3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9/ KIRI, 2020.5
제3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20/ KIRI, 2020.9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운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 2019-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이승준 2019.4
- 2019-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9.7
- 2019-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김동겸·정인영 2019.8
- 2019-4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 김규동 2019.12
- 2020-1 코로나19(Covid-19)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 / 김해식·조영현·김석영·노건엽·황인창·김동겸·손민숙 2020.4
- 2020-2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20.6
- 2020-3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과제: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20.7
- 2020-4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 조용운 2020.8
- 2020-5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 - 재무건전성 / 김해식·노건엽·황인창 2020.9

- 2020-6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I) - 사회안전망 / 정성희·송윤아·강성호·기승도·장윤미 2020.9
- 2020-7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V) - 보험분쟁과 법제 / 황현아·손민숙 2020.9
- 2020-8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II) - 소비자 중심 경영 / 변혜원·김석영·손재희·정인영 2020.10
- 2020-9 코로나19와 변액보험시장 동향 / 김세중·김유미 2020.11
- 2020-10 코로나19와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 / 김세중·김혜란 2020.11
- 2020-11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 윤성훈 2020.11
- 2020-12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V) - 상품 및 채널 / 김동겸·김석영·정인영 2020.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해외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113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3 / lsy@kiri.or.kr)

저 자 약 력

김 해 식

St. John's University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haeskim@kiri.or.kr)

김 세 중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jkim@kiri.or.kr)

최 원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수료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 kinowon@kiri.or.kr)

김 혜 란

건국대학교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hrkim@kiri.or.kr)

김 유 미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umi_kim@kiri.or.kr)

연구보고서 2020-12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안 철 경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 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9741-32-7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